

청년조합원과 민주노총 연구결과 보고

2021.11.11(목) 오후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정경윤 책임연구위원

발표 순서

1	2	3	4
연구목적 연구질문 연구방법	설문조사	사례연구	결론 의의/한계

연구목적

- ▶ 청년조합원(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 **관점** 수립

왜 필요한가?

연구목적

- ▶ 민주노총, 2006년부터 청년사업 본격화
 - 이유 : 외환위기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
하지만 청년 조합원 가입은 미비와 조직화 요구
- ▶ 청년포함 주요 조직화 사업
 - 1기(2006-09), 2기(2010-13), 3기(2014-18)
- ▶ 2019년 ‘가맹산하 청년사업담당자 연석회의’ 구성, 사업 추진
- ▶ 가맹조직과 산하조직, 청년사업담당자 구성, 사업 추진
- ▶ 2021년 민주노총 총연맹 ‘청년사업실’ 구성

연구목적

▶ 더딘 청년노동자 ‘조직화’, 이유는?

<2016년 ‘민주노총 청년사업을 위한 간담회’ 평가에서>

“민주노총이 청년사업에 대한 관점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존 관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청년사업을 대상화 하고 있다”

‘청년노동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서 노동조합에 관심이 적다?

[1984년] “개인주의적 생활태도나 편의 위주의 사고 방식이 청년 노동자층에 스며들어”

[2004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경험한 조합원과 1990년대 입사한 조합원들 사이 세대차이 문제 존재”
(금속노조 지회장들, 세대차이로 노조활동 어려움 호소)

[2010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노동운동의 가치와 존재 의미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목적

▶ 다른 관점의 제기

- 2019년 공공운수노조 연구, 2020년 금속노조 연구

청년세대 조합원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

청년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소극적인 원인 파악, 해결방안 논의 제기(노동조합 역할의 중요성)

▶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

-계급의식과 연관,

‘세대’는 단순히 그 시대의 사회역사적 조건을 반영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대를 형성하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공동의 의식과 경험이 창출, 특정 세대의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조건과 과정 탐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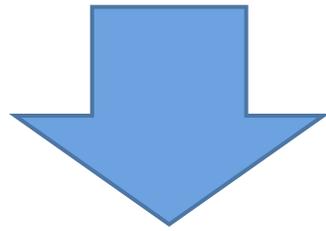


노동조합이 청년노동자의 노동 계급 정체성 형성과 실천을 위해 어떤 조건과 과정을 만들 것인가?

연구목적

▶ 민주노총 관점의 변화

청년조합원(노동자)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어서 노동조합에 관심이 적다



청년조합원(노동자)의 주체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연구질문

1.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2. 청년 조합원은 어떻게 노동조합 참여와 활동을 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청년 조합원에게 어떻게 호응하는가?
3. 민주노총은 '청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4. 청년 조합원의 주체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연구방법

▶ 연구대상 : 민주노총 청년조합원(만39세 이하)

▶ 연구방법

연구설계
사전인터뷰

청년채용간부2
청년현장간부2
청년 평조합원2
전문가 자문 4

설문조사

사례연구

종합분석

- 청년채용간부 :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 청년현장간부 : 철도공사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 청년 평조합원 : 철도공사노조,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의민족지회